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• 따뜻한 금융</li> <li>• 튼튼한 금융</li> </ul>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 대 영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고 영 호 서기관 (02-2100-2831) 전 수 한 사무관 (02-2100-2832)		

## 제 목 : 금융개혁 바로 이해하기

### 1 금융개혁의 목표는?

- ☐ 금융개혁은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
  - 검사·제재개혁, 법령·그림자규제 개혁 등을 통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“코치”에서 “심판”으로 전환 → 금융권의 자율·창의 제고
  - 금융회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여 기술금융, 인터넷 전문은행, ISA, 클라우드펀딩 등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출시
  -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,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, 서민·취약계층 지원 확대, 금융소비자보호 강화
- ➔ '15년 금융개혁은 3대 전략, 6대 핵심과제, 70개 실천과제, '16년 제2단계 금융개혁은 3대 전략, 36개 세부과제 추진 중

√ (접근방식) ①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 → 국민과 시장의 신뢰형성  
 ② 실천가능한 과제의 발굴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  
 ③ 도입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화 →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제고

### 2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?

- ☐ 수요자의 건의를 바탕으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체제를 공식화·제도화
  - ① 민간 중심의 금융개혁회의(추진위)에서 최종 방안 확정
  - ② 현장점검반 조직화 : 816개사 방문, 4,708건 건의접수(수용률 46%)
  - ③ 그림자규제 근절 등을 위한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('16.2월~)
  - ④ 금융위원장, 125회('15년 70회, '16년 55회) 금융현장 직접 방문
  - ⑤ 금요회, 29회('15년 19회, '16년 10회)에 걸쳐 전문적·심층적 의견수렴
  - ⑥ 매월 금융위원장 기자브리핑 정례화 → 홍보 및 언론 의견 청취
- ☐ 금년에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·기업·지역금융 등으로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등 상시개혁체계 구축 추진
- ☐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실태 서베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
  - 2차례 대국민 서베이('15.6, 12월), 핵심개혁과제(검사·제재, 핀테크, 기술금융)는 심층면접(FGI) 병행('15.11월)
  - '16.7월~8월중 국민·전문가 대상 FGI, 서베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

### 3 금융개혁과 민생돌보기·경기회복 중 무엇이 선결과제?

- ☐ 금융정책은 「금융안정」과 「금융개혁」이 양대축으로서 동 방안들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과 직결
  - ① 금융안정 : 기업구조조정,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안정 등  
→ 경제위기 사전차단 등 민생과 경기회복의 기반
  - ② 금융개혁 :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실물지원 및 서민 지원 강화 등 국민과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 병행
- \* 실물지원 : 기술금융, 모험자본 육성, 정책금융개편 등
- \* 서민지원 강화 :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, 채무재조정 지원 등
- ☐ 금년 개혁의 핵심 4대전략 중 2가지가 실물지원과 국민금융편의  
→ 일관되면서 현장착근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

#### 4 감독기구 개편 등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?

-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거대담론 중심의 금융개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논란만 확산되고 블랙홀 같은 이슈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음
- 이번 금융개혁은 **실천가능한 과제**를 소비자·현장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음
- 특히, **현장점검반, 움부즈만**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철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간을 두고 변화 유도

#### 5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성과는 ?

- 계좌이동서비스, 클라우드펀딩 등 다양하고 혁신적 서비스·상품이 국민 생활에 안착되고 점차 확산되고 있음
- (계좌이동서비스) 총 **500만건**의 자동이체계좌 변경
- (간편송금·결제) 간편송금 **10여종** 및 간편결제 **30여종** 출시
- (비대면 실명확인) 약 **16만건**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
- (보험다모아) 약 **15%**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 출시
- (클라우드펀딩) **52개 기업**이 **84.9억원** 펀딩
- (ISA) **230만계좌**, 가입금액 **2.3조원**
- (보험규제 개편) **22년**만에 보험규제 전면 개편 등

#### 6 국민들의 금융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 않은지?

- **중전 서베이 결과** → 일반인·전문가 모두 **상당한 수준**으로 인지
- ① '15.12월 서베이(일반국민(700명) 및 전문가집단(154명), 갤럽)  
- 개혁과제 8개 중 4개이상 인지 : 일반인 68.7%, 전문가 94.8%
- ② '15.11월, 핀테크(일반국민 1,000명 등 총 1,124명, 한국리서치) FGI : 66.3%가 '핀테크' 인지, 이용자의 74.2%가 서비스에 만족
- ③ '15.11월, 기술금융(중기 CEO 400명, 은행점장 3,305명) FGI : 96.3%가 기술금융 재이용 희망, 82.3%가 주위에 추천

- ④ '15.12 검사·제재개혁('15년중 수검 경험 금융사 실무자 400명) FGI : 90%에 근접한 인지율, 80%가 당국 개혁노력 긍정 평가

- 앞으로 **7~8월 중** 서베이, FGI를 통한 실태평가 후 → 체감도와 가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·보완

#### 7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?

- 금융당국의 **금융소비자 보호 조직과 인력 개편** ('16.2월~)  
\* 금감원 권역별 소비자보호 조직 신설, 금융민원센터 개편 등 인력보강 등
- **금융교육 확대**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 
\* 금융교육 확대[('14) 160만명, 3.3만회 → ('16) 200만명, 4.1만회],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[평균 42일 → 21일],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선진화방안('15.11월),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('15.9월),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('16.6월) 등
-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「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\*」을 금년 20대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
\* 금융소비자에 사전정보 제공,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, 금융소비자 사후 권리 구제 강화, 소비자보호체계 정비 등

#### 8 우리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가 왜 필요한가?

- 금융개혁은 『경쟁』과 『혁신』을 통해 **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제공** ⇒ **금융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**
- '자율'에 기반한 '경쟁'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
  - ▶ 코치, 과도한 검사·제재관행 → 심판, 컨설팅 검사방식으로
  - ▶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→ 과감히 폐지·개선
- 감독·규제 개혁을 통해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한 만큼 금융회사가 생산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금융개혁 완성
  - \* '15.12월 서베이 조사결과,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"금융회사의 변화" 필요
  - \* '16.5 매경한국리서치 :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(71.1%)
  - \* '16.6 서울엠브레인 :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(57.1%)

□ 현재 금융산업은 '보신주의·무사안일'한 문화로 인하여  
생산성은 떨어지나 보수는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

-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 
'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' 직원이 제대로 우대받고,  
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·평가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

□ 이를 위하여 금융공공기관이 「보수·인사·교육·평가·영업방식」  
전반을 선도적으로 개혁 ⇒ 민간 금융권 확산 기대

9

### 금융개혁이 산발적이고 금감원 신설 같은 성과물이 없다?

\* 총탄이 빗발치는 전시(기업구조조정)에 군인들 연봉(성과연봉)을 논의

□ 금융개혁은 ①금융당국 변화 → ②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 → ③  
금융회사 변화라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

#### ① 반세기만의 금융감독 혁신 → 민간 금융의 자율과 창의 제고

- i) 금리·수수료·배당 등 가격에 대한 불개입 선언
- ii) 위규적발이 아닌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실시, 확인서·문답서 폐지
- iii)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: 과거 14년간 10건 → '15.4월 이후 176건
- iv) 법령규제(1,064건) → 211건 개선, 그림자규제 철폐(700건 → 43건)
- v) 금융당국 스스로를 수갑 채웠다고 평가받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 시행

#### ② 금융권의 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

- i) 23년만의 은행인가와 세계 최초 인터넷 기반 계좌이동
- ii) 22년만의 보험규제 전면개편 및 보험다모아 출시
- iii) 22년만에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, 클라우드 펀딩 도입 등 핀테크 혁명 기반
- iv) 세계 최초의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→ 담보·보증에서 기술력 중심으로

#### ③ 금융권 스스로 변화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, 성과주의 확산 등

□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조직개편은 논쟁이 많은 블랙홀 같은 이슈  
→ 금융현장이 원하는 시급한 과제 과제부터 하나하나 처리

10

### 향후 금융개혁 방향은?

□ 7월, 8월 2개월 동안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이행정도·성과,  
국민들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심층·종합 점검 추진

- ① 우선, 검사·제재 개혁, 규제개혁, 기술금융, 핀테크 등  
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나고 있는지  
현장점검반,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실태조사 등 현장점검 추진
- ② 전문가, 일반국민 대상으로 FGI, 서베이 등을 통해 주요 개혁  
과제의 성과와 체감도·만족도 등에 대한 심층 평가·분석
- ③ 전체 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통해 전면 재정비·보완하고  
신규서비스 도입,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

\* 예) 법령·그림자규제에 이어 최하단 규제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,  
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추진(상장공모제도, 초대형IB 등)  
성과중심 문화 전 금융권 확산, 신용평가 선진화 등

➡ 이러한 점검·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개혁의  
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음

□ 아울러,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 
필요한 금융개혁 법안\*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\* 혁신적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위한 은행법,  
거래스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,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,  
체계적인 연금관리를 위한 개인연금법, 보험업 규제완화를 위한  
보험업법,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등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